

“무형유산, 살아 숨 쉬어야 할 문화적 생명체”

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특별위원회 22일 공식 출범

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발전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주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식 출범한다.

특별위원회 준비위원 대표는 고성오광대 전승교육사 황종욱이며, '탈놀이', '농요', '무속', '농악' 등 주요 단체종목 전승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기구는 오랜 기간 누적된 제도적 미비, 현장과 괴리된 행정, 전승 인프라의 부족,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전승자 배제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가무형유산을 보호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무형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할 문화적 생명체”라며, 현장과 괴리된 행정 중심의 무형유산 정책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와 숫자 중심의 행정, 전승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제도는 무형유산을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단체종목 전승 구조 붕괴, 전승자의 생존권과 권리 보장, 청년 세대 전승 단절 위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승자들이 종목과 지역을 넘어 연대해 구성됐다.

향후 목표는 △단체종목 공동체적 전승 구조



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발전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주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식 출범한다.

복원 △전승자 지정 신속화 및 생존권 보장 △단체종목 특성성 반영 제도 개선 △청년 참여 중심 미래 전승 생태계 구축 △현장 중심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화 관철 등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출범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전승자들이 스스로 존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나선 역사적 결집”이라며 “단체종목

무형유산이 박물관을 넘어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 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과 공식 논의 구조를 요구하고, 현장 전승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동학농민혁명 정신 담은 ‘굿즈’ 찾는다

정읍시, 3월 3-9일 공모전 접수

정읍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문화 콘텐츠 발굴에 나섰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역사를 친근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2026년 동학농민혁명 굿즈(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굿즈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보다 친숙하게 알리고,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게 할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공모 대상은 정읍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디자인과 스토리를 담은 사무용품, 생활용품, 패션 잡화 등이다. 특히 실제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실용성과 시장성을 갖춘 아이디어 제품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조건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고려해 판매 희망가(소비자가)가 3만원 이하여야 하며, 제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내인 제품으로 제한된다.



개인 또는 업체당 최대 3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9일까지이며, 정읍시청 3층 동학유산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3월 말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변희섭 학예연구사,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정읍의 역사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온 정읍시립박물관의 숨은 주역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읍시는 지난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 박물관·미술관 신년교례회'에서 변희섭 학예연구사(사진)가 '2025년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공립 박물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이바지한 실무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변 학예연구사는 그동안 정읍 독립운동, 정읍 서화, 보전교, 석지 채용신 등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연이어 개최하며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정읍 역사의 깊이와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정읍 서화’ 전시를 기획해 잊혀 가던 지역 서화가들을 발굴하고 이

를 집대성한 도록을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정읍의 대표 화가인 석지 채용신 관련 전시를 연속으로 기획하고, 그의 귀중한 작품들을 다수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물관의 핵심 기능인 소장품 확보 분야에서의 노력도 돋보였다. 그는 소장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수집 활동과 공개 구입 절차를 통해 ‘장군리 향약’을 비롯한 총 30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함으로써 박물관의 학술적 토대를 탄탄히 다졌다.

이와 함께 정부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소장품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국보 순회전 등 3건의 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전시 환경 개선과 중요 소장품의 보존 처리까지 완수해 냈다.

이 밖에도 어린이부터 성인,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9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는 데 힘썼다. 그가 기획한 ‘어린이 국가유산 발굴 체험장’은 매년 1000여 명의 어린이가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주문화재단, 신협철도 999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이어간다

전주문화재단은 전주한지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신협중앙회와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후원한 ‘2025 신협철도 999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2026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협철도 999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기차를 타고 전주를 방문해 지역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마련된 민관협력형 공익 프로젝트다.

2022년 시작된 이후 매년 꾸준히 운영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 사업 시작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은 4,000여 명에 달한다.

참가 아동들은 전주를 찾아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주 지역에서는 한지 공예 체험과 전주비빔밥 만들기, 한옥마을 탐방과 한복 체험 등 전통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훈 기자

신혁진 전북대 교수 작곡 뮤지컬 첫 공개

‘대불호텔’ 리딩 쇼케이스 콘서트 17일 우진문화공간서 개최

한국 최초의 근대 서양식 호텔인 인천 ‘대불호텔’을 무대로 한 창작 뮤지컬 ‘대불호텔(The Great BUDDA HOTEL)’이 리딩 쇼케이스 콘서트를 통해 처음으로 관객과 만난다.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전북대 음악과 교수인 작곡가 신혁진의 작품발표회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는 17일 오후 7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개최된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대불호텔’은 한국 개항기와 인천항의 역사를 배경으로, 짧은 기간 존재하다 사라진 대불호텔의 기억을 미스터리와 판타지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번 신작은 단순한 역사극이 아닌 ‘미스터리 환상 뮤지컬’이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표방하며, 두 남녀 주인공을 통해 수많은 사대의 단편적 삶과 기억을 몽환적으로 교차시킨다.

작품에는 작곡 신혁진, 대본 김재청, 연출 유성목이 의기투합했다. 음악감독 허준희와 함께 배우 김아름, 조예찬이 주연으로 참여한다. 무대는 100년 만에 발견된 대불호텔의 잔해를 출발점으로, 격변의 시대 속에 묻힌 인물들의 삶과 인천항에 남겨진 흔적들을 서사적으로 풀어낸다. /김태훈 기자



전북대 신혁진 교수(음악과)는 “이 작품은 시대를 관조하며 역사 속 개인의 서사를 담아내는 콘서트 뮤지컬로,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이번 리딩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정식 레퍼토리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